

# “아이들이 불자회 복덩이랍니다”

## 우리은행 서울불자회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봉사현장

“우리 복덩어리들, 보고 싶었어!”

2월 11일 토요일, 승가원장애아동요양시설(원장 지웅)이 아침부터 떠들썩했다. 우리은행 서울불자회(회장 이택수) 회원 10여명이 찾아 온 것이다. 불자회 홍보부장 이재상(50·본점 외환계 과장)씨를 비롯한 회원들은 아이들을 보자마자 번쩍 안아들었다.

장애아동들도 우리은행 불자회 ‘아빠’ ‘엄마’들이 반가운지 얼굴을 보자마자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 아이들과 만났지 어언 6년

잠시 장애아동들의 ‘환대’를 받은 회원들은 놀아달라고, 책 읽어달라고 웃음을 짓는 ‘고사리’ 손을 어렵게 떼어놓았다. 봉사자로서의 위치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불자회원들이 아이들과 마주한 지도 벌써 6년. 회원들은 그간 매달 둘째 주 토요일은 ‘봉사하는 날’로 정하고 그 약속을 굳게 지켜왔다. 회원 개개인이 알아서 찾아 오기에 이제 ‘연락책’도 필요없었다.

불자회원들은 우선 아침부터 하나씩 두루고 할 일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이어 식당·창고·놀이방·중증장애아동실 등으로 나눠 맡은 위치를 찾았다.

여기서 봉사부장 김월성(43·성균관대지점 차장)씨는 단연 ‘멀티 플레이어’. 설거지를 하고 있는가 하면 청소를 하고 있고 밖에 있는가 하면 중증장애아동실에 있다. 김씨는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분주히 이곳저곳을 누볐다.

### 매월 둘째 토요일 봉사의 날

승가원장애아동요양시설 봉사의 최대 난코스는 중증장애아동 식사 수발과 목욕. 거동을 하지 못해 손가락을 직접 입에 넣어 밥을 먹여줘야 하는 중증장애아동들은 누워서 식사하다 보니 잘못하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흘러나오는 것이 더 많다. 적절한 양조절과 아동과의 교감이 중요하다.

목욕의 경우, 아이들을 씻기고 옮기는 것 자체가 힘들다. 아동들은 씻기는 와중에 용변을 보는 등 봉사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힘든 일에는 윤유숙(56·비산동지점장)씨가 중심이다. 윤씨는 윤희(가명·10)를 안고 밥을 떠먹여주면서 “아이를 키워봐서 별로 힘들지 않다”며 웃음 지었다. 장애아동이라는 ‘본별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우리은행 서울불자회가 이처럼 ‘모범 불자회 봉사단체’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은 불자회 내부 화합 덕분이다. 이택수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굳은 의지로 모든 일에 앞장서고, 그 뒤에서는 다른 회원들이 든든하고 묵묵하게 걸음을 함께 옮겨 왔다.

### ‘놀아달라 책 읽어달라’ 환호

김월성씨는 “회원들에게 강제성이 없을 때 진정으로 봉사활동을 좋아할 수 있다”며 “직장 불자회가 범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현장 활동을 통해 발신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대사회활동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봉사활동이 친목도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불자들이 자발적으로 ‘불자회’에 나오는 동기가 된다는 것이다.

그럼 매달 승가원장애아동들을 만나는 불자회 개개인은 어떤 생각을 할까?

“여기 올 때마다 아이들에게서 오히려 위로를 받아요. 생활 속에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애들 웃음 속에서 녹아버려거든요.”(용산지점 손을선 대리)

### 청소·식사수발·목욕 봉사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용변을 치우고 나면 식사도 못했다는 회원들. 하지만 불자회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다. 한 번, 두 번 방문 횟수가 늘어갈수록 아이들



“자, 애들이, ‘아빠’ 청소한다.” 우리은행 서울불자회는 매달 둘째주 토요일 승가원 장애아동요양시설을 찾아 장애아동들과 함께한다.

과정이 들어가고, 회원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길이 승가원장애아동요양시설에 머문다는 것을.

봉사활동을 갈무리 할 무렵, 불자회원들은 승가원장애아동요양시설에 올래 첫 성금 50만원도 전달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매 분기별로 회비를 모아 정성스럽게 마련해 온 것이다.

### 회비 모아 성금 50만원 전달

아이들과 헤어지고 문밖을 나오는 길, 발이 안 떨어진다. 다음 달이면 어김없이 아이들을 안아주겠지만 그래도 자꾸 눈에 밟힌다.

이택수 회장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 열심히 일한 후에 아이들을 만나면 더 반가울 것 같다”며 “승가원에 올 때마다 불행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식사수발과 설거지를 맡은 불자회원.



“올 1사분기 성금입니다.” 이택수 회장이 시설에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 고령경찰서 불자 범우회 창립

“역사가 살아 숨 쉬고 문화가 잘 간직되어 있는 고령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고 있는 경찰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겠다고 하니 감사한 마음뿐”이라며 “부처님 마음과 정신에 입각해 지역 치안을 담당하고,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어루만지며 길을 밝혀주는 경찰불자가 되라”고 당부했다.

초대회장에 선출된 김우택 경감(고령지구 대장)은 “107명의 전체 직원 가운데 70~80%가 불자임에도 불자회가 결성되

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안타까웠다”며 “일일이 개인적인 의사를 확인해 창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령경찰서 범우회는 앞으로 반동사에서 월 1회 정기법회를 갖고 사찰예절과 기초리등을 배우고 참 불자로서 신심을 다져 신생활을 이어갈 예정이다.

불자 범우회는 또 경찰관이나 일반직원들까지 활동하도록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글·사진=고령=배지선 기자



고령경찰서 불자 범우회가 2월10일 반동사에서 창립법회를 병행했다.

경북 고령경찰서 불자 30명이 2월 10일 반동사에서 불자 범우회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법회에서 법륜 스님(반동사 주지)은

## 일터가 도량입니다

### “일탈의 유혹 진언으로 벗어나”

전문택 공인회계사

“한 주를 불공으로 시작하면 조금이나마 부처님 법에 가까워지는 느낌입니다. 본래의 ‘나’를 찾아 진언을 외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새벽 5시엔 진각종 서울 밀각심인당(진각종의 법당)에서 만날 수 있는 공인회계사 전문택(52·법명 묘정·사진)씨. 왼손 검지손가락을 세워 오른손바닥으로 왼손 검지를 감싸 권금장지권(金剛指券)을 한 채 ‘옴마니반메훤’ 육자진언 수행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월요일, 전씨가 출근하는 곳은 당산동 ‘공인회계사 전문택 사무소’. 전씨가 자리에 앉고 나면 하루 종일 팩시밀리와 전화기에서 ‘불’이 난다. 이제 18년 된, 노후유 있는 ‘베터랑’ 공인회계사다보니 세무 문제를 의뢰하는 회사나 사업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매일 이렇게 의뢰인들의 요청 속에서 정신없이 살지만, 전씨는 자신에게 일이 많은 것을 늘 감사하고 있다. 가끔 ‘무리하게’ 세급 납부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자들 때문에 마음고생도 하지 않. 전씨의 마음속에는 부처님 말씀이 새겨져 있어 굳건하다.

“일탈의 유혹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 때는 일요일 불사를 통해 마음을 정리합니다. 심인당에 매일 갈 수 없어 평일에는 집에서 아침 5분 명상과 진언 염송을 하고요. 새롭게 하루를 열고, 정법을 향한 의지를 다지는 데 많은 도움이 되더군요.”

전씨가 이렇게 독실한 불자가 된 것은 순전히 돌아가신 어머니의 영향이다. 항상 심인당에서 불공을 드리고 수행을 하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에게 이끌려 전씨도 어린 시절부터 심인당에 나가기 시작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빠짐없이 불사시간을 지키게 됐다.

하지만 ‘불법은 불법이고 삶은 삶’이었다. 그러다 전씨에게 위기가 닥쳐왔다. 1998년, 전씨는 간암발기 진단에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던 것이다. ‘날벼락’이 따로 없었다. 한창 공인회계사 사무실이 잘 되고 인생의 황금기를 맞았던 때였다.

“앞이 깜깜했죠. ‘꿈꿨던 것이 죽는구나’ 싶어 삶을 뒤돌아 봤어요.” 지금이야 여유 있게 이야기 하지만, 당시 전씨는 ‘절망’이 무엇인지 처절하게 맞았다.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걸려있었기 때문이다.

그 때 전씨를 위로한 사람들이 밀각심인당 도반들이었다. 전씨를 살리기 위해 불공을 드려겠다는 도반들의 정성에 감동, 전씨도 수행에 매진하게 됐다. 그렇게 도반들의 서원과 전씨의 수행정진은 기적을 만들어냈다. 마음의 약이 몸의 독을 없앴을까. 암세포가 없어지고 건강을 완전히 되찾게 됐다.

이런 과정들을 겪었기에 전씨는 하루 종일 아무리 바빠도, 진언 염송 수행을 빼놓지 않는다. 다시 얻은 삶은, 그야말로 ‘불자답게’ 살아 보겠다고 발원했기 때문이다.

“불교는 ‘마음 닦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많은 유혹에 부딪히는데, ‘이것이 모두 수행이다’ 여기면 한걸음 이겨 내기 수월합니다. 다시 얻은 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불법안에서 올곧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전국 어느곳에서도 일등할 수 있는 교육장소  
범음·범패(梵音·梵唄) 평염불 상주권공, 각배, 영산, 짓소리까지

##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2006년 제8기 신입생 모집

- ◆ 지원자격 : 스님, 포교사, 교임법사, 각 종단을 초월하여 절을 이어갈 후계자 (유발자도 가능)
- ◆ 과 목 : 범패 상주권공의식, 각배의식, 교양과목
  - 안채비 : 각종불공의식, 49재의식, 천도재, 신중작법의식, 각종 소, 낭독하는 법
  - 겹채비 : 바라춤, 도량계작법, 다계작법(나비춤), 사물 다루는법, 화청(회심곡)
- ◆ 과 정 : 2년(4학기), 1년과정(상주권공, 간단한 불공)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학교에 비치), 반명함판 사진3장, 주민등록등본 2통
- ◆ 원서마감 : 2006년 3월 6일 월요일 오후 3시 ◆ 입학식 : 2006년 3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 ◆ 수업시간 : 첫째주 토요일 - 2학년 (오후 3시부터 - 5시 30분까지)  
둘째주 토요일 - 1학년 (오후 3시부터 - 6시까지), 통상생 포함  
특수 상좌들 각배, 영산반 목요일 (오후 3시 부터 - 5시 30분까지)
- ◆ 통상생 출석교육 :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 다음 일요일 12까지
- ◆ 전화번호 : 062)362-8604 / 011-624-8604 / Fax 062)372-8604
-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759-14 (우 502-242)
- ◆ 학 장 : 해공스님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이수평가자)
- ◆ 계좌번호 : 농협 641010-56-000296 (예금주 : 노연숙)

### 한국불교의식대학 신입생모집 교육기간

◇ 교육기간 : 2006년 2월 22일 - 2월 25일 (3박 4일)

- 내용 : 2월 23일 오후 2시 : 입학식 및 시련절차 실기, 대명관속 보소정진언, 화청(회심곡), 원아계 교육  
저녁시간 : 사물 다루는 법 - 북, 태평, 목탁, 요령  
2월 23일 9시 : 정안의식, 가사이운식(짓소리 녹음), 화청(회심곡), (전편)교육  
2월 24일 9시 : 상주권공, 지장불공, 관음시식, 상용영반, 화청(회심곡), 상축하는 법  
2월 25일 9시 : 용왕불공 및 방생의식교육, 소장불, 39위 신중작법, 중사영반 중사관속
- 준비물 : 가사장삼(스님일 경우), 필기도구, 녹음기, 일반 불자 평상복

▷ 숙식제공 포함 교육비 25만원 ▷ 모든 교육교재는 본 대학에 있음 (교재비 별도) ▷ 이번 교육을 받으실 분은 미리 전화를하시고 송금요

한국불교 광주·전남 총무원 이전교장으로서 이번 교육을 태고종 스님들에게 한해서 특별 무료

## 중요무형문화재 해공스님의 영산의식 시리즈 (비디오, DVD출시)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이신 해공 스님께서 불교의식을 비디오와 컴퓨터 등에서 볼 수 있는 DVD를 따라하기 쉽게 학습용으로 촬영, 아래와 같이 제작출시 하시기에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주문바랍니다.

아 래

- 1.대령/관속 2.상주권공 지장불공의식 3.상용영반 4.회심곡(화청)1 5.회심곡(화청)2 6.구병시식 7.관음시식 8.점안의식 9.방생의식 10.사물 다루는 법 11.안택 12.사다림 13.산신불공 14.미타불공 15.신중불공 16.관음불공 17.지장불공 18.삼대화상증명불공 19.중사관속 20.중사영반 21.가사불사의식 22.신중작법39위 23.간단한 신중작법 24.전통조석예불 25.천수경/장엄염불 26.상주권공/각배/영산염불 27.사시상단불공 28.작법무(복청계전수) 29.작법무(시방찬소리도량계) 30.작법무(육근만다라선송다계작법) 31.작법무(향수나 열사다라니) 32.삼보통칭 33.아침저녁중성 34.향수해례예불 35.혼자서 하는 민관속(간단한 관속) 36.생일불공 37.상주권공49제의식1 38.상주권공49제의식2 39.상주권공49제의식3 40.상주권공49제의식4 41.제사불공 42.삼신이온 43.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1 44.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2 45.화엄시식 46.약사여래불공 47.교재2권 100,000원

- ◆ 비디오 반이상 구입시, 5일간 교육대입 14개 증정합니다.
- ◆ 비디오 각 25,000원 / DVD 각 30,000원
- ◆ 농협계좌 641010-56-000296(노연숙)
- ◆ 제품구입처 : 중무소 062)362-8604

해공 스님 011-624-8604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해공스님

## 학 인 모 집

불광사 영남범음범패 교육대학  
통도소리·작법무 교육본산

전통의 영남범음범패 통도소리와 통도사 작법무(바리춤·나비춤) 교육생을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학 과	내 용	교 수 진	강 의 일 시
경전교리	금강경 법화경 육조대장	교수: 선과법사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전통의식	작법무과 (1년과정) 통도바리춤 통도나비춤 사물다루는법	(통도사 전임 상노전) 교수: 청봉스님 (조영선 무용단 단장) 조교: 무혜심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법배학과 (2년과정)	시련·삼안인 한국·49대 및 전통교육	(통도사 전임 상노전) 교수: 청봉스님 조교: 지오스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 특 전
  -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이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분은 장학생(무료)으로 지원하여 줍니다.
  - 본교생이 만약 출가를 원할시 적극지원하며 숙식과 교육에 전액무료임.
- ◆ 개강식 일시: 2006년 3월 16일 오후 2시
- ※ 행자 수시 모집중
- ◆ 장 소 : 경남 양산시 웅상읍 주진리 (주지장 및 기숙사원내)

통도소리·작법무교육본산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